

본 자료는 10. 22(금), 朝刊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보 도 자 료 산업자원부 공보관실	작 성 과	자본재산업총괄과
		담 당 자	김동수 과 장 이상욱 사무관
		전화번호	2110 - 5615

<PC통신: 천리안·하이텔 go epic 나우누리 go mocie // 인터넷: www.mocie.go.kr >

신뢰성향상사업, 지속확대 키로

- 사업기간 연장 및 제도개선 추진 -

□ 금년 6.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추진키로 했던 정부주도의 '신뢰성 인증사업'이 지속 추진되고, 지원규모도 확대

○ 산업자원부는 우리산업의 신뢰성수준 민간의 여건 등을 감안, 「부품소재 전문기업육성등에관한특별법」의 개정을 통해 **2011년까지 연장**하고,

- 신뢰성확보를 위해선 고도의 기술과 대규모의 투자를 요하므로 민간의 노력만으로 사업추진에 한계

*신뢰성: 제품의 초기성능 지속기간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주로 고장율로 표시

○ 지원규모도, 향후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약 4,900억 원 규모로 확대, 우리의 신뢰성을 선진국수준으로 향상시킬 예정

*선진국대비 현재의 신뢰성수준 및 목표: (2003년) 70내외→ (2011년)95내외

*미국시장에서 국산승용차의 1년次の 減價率은 24.1%로 일본(3.2%)에 비해 7.5배

□ 그간 정부는 부품소재의 신뢰성향상을 위해 2000년부터 약 1,615억원을 투입 신뢰성평가·분석장비확보, 전문인력양성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추진

구분	2000	2001	2002	2003	2004
예산(억원)	45	300	360	430	480

- 04년 9월말 현재 신뢰성기준 258건을 제정, 127개업체(154건)에 대한 신뢰성인증을 부여

- 03년 말 기준, 신뢰성인증 제품의 매출액은 인증전에 비해 약 2배이상 급신장

*55개 인증업체 조사결과, 연간매출액이 인증전 979억에서 인증 후 2,028억으로 확대

- 부품소재기술개발단계에서부터 해당제품의 신뢰성확보를 지원해주는 신뢰성향상지원사업도 병행

□ 한편, 신뢰성 인증품목의 수요창출 등을 위해 보험을 통해 신뢰성 보증사업도 실시

- 제도 시행 첫해인 03년의 경우 11개 인증업체에 대해 1조 500억원의 보증을 실시하였고,

- 금년의 경우 9월말현재 14개 업체에서 1조 5천 6백억원대를 보증

□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는 신뢰성인프라 구축과 제도의 효율화를 지속추진 할 예정

- 먼저, 인증절차의 단순화, 인증소요기간 축소 등 고객(기업)편의 위주의 사업추진체계를 구축하고,

- 사업내용도 기존의 신뢰성평가·인증위주에서 ①부품소재 수요 대기업-공급기업간 신뢰성공동향상사업 ②수출부품소재기업 위주의 신뢰성분석사업 등도 새로이 도입

***부품소재수요대기업-공급기업간 신뢰성지원사업 내역**

중소부품소재 기업중 대기업에 납품업체중이거나 납품이 예정인 기업중 신뢰성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에 대한 고장분석, 수명예측 등을 지도하는 프로그램